

'국민의힘 내란 비호 44인 규탄' 야4당 조선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2025.1.7.(화) 14:00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대한민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짰습니다.

12월 3일,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무장군인에 맞서고, 동료의원들이 군인들의 총부리에도 국회 담을 넘던 그 날, 당사에 뽕뽕 숨어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고자 국민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자들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 모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녕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공당으로서 내란 종식에 협조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온몸으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이제는 내란동조를 넘어 내란공범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의 원인은 바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초래한 한 달여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내란을 끝내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첫걸음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내란종식을 가로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하는 행위이자,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을 배신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내란공범들을 당장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체포하십시오.

또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체포영장을 무시하는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십시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내란세력과 결탁한 이권결사체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당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란수사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나 위헌 정당이나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데 가담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44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둘째, 그 중 내란 국조특위 조사위원이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 당직을 맡고 있는 강명구 비서실장은 즉각 국조특위와 당직을 사퇴하십시오.

셋째, 내란에 가담하는 정당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가담,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십시오.

넷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 4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 가담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 4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

< 국민의힘 내란 비호 44인 명단 >

<지역구의원>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언석(경북 김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비례대표의원>

강선영,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